

해방기 단편소설에 나타난 미국 대중문화 양상 연구

서철원(전북대)

〈 목 차 〉

1. 서론
2. 해방기 탈식민적 주제로서 글쓰기
3. 결론

1. 서론

해방은 역사적 의미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시기라 할 수 있다. 38선을 경계로 북쪽은 소련이, 남쪽은 미국에 의해 신탁되던 ‘해방기’¹⁾는 일본의 식민지

- 1) ‘해방기’에 관한 명칭과 시대구분은 논자마다 차이가 있다. ‘해방기’라는 명칭은 신형기, 박재섭, 송희복, 송기섭, 전홍남, 김영진 등이 사용하였고, ‘해방공간’이란 명칭은 김윤식, 권영민, 정호웅, 김승환 등이 사용했다. ‘해방직후’라는 명칭도 사용되었는데, 조남현, 신덕룡, 장두식, 이우용, 임무출 등이 사용했다. ‘미군정기’라는 명칭은 서경석이, ‘광복직후’는 김성렬이, 8·15직후는 임진영이, ‘교착기’는 이재선 등이 사용했다. 북한에서는 ‘평화적(민주)건설기’라는 명칭으로 사용되었다. 이 가운데 ‘해방공간’이라는 김윤식의 용어가 비교적 보편화되어 사용되고 있으나, 이는 단순히 주관적이고 비과학적인 용어로 평가됨으로써 ‘총체적인 역사인식의 단위를 분절화 할 위험성이 내포’(송희복, 『해방기 문학비평 연구』, 문학과 지성사, 1993, 12면)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본고는 8·15 해방 이후를 ‘해방기’로 명명하고, 그 시기를 1945년 8월15일에서 1950년 6월25일 한국전쟁 전까지로 규정한다. 이병순, 『해방기 소설 연

지배 상황에서 벗어남과 동시에 미국으로부터의 새로운 식민지 진입으로 볼 수 있다.

해방기 문학은 일제강점기 저항 문학과 다른 탈식민의 문학사적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탈식민의 기저에는 남북 분단이라는 특수한 환경이 깔려 있다. 따라서 해방기 단편소설 연구는 미국에 의해 편성된 신식민지 지배체계를 재감하는 적정한 기회라 할 수 있다.

해방기 미국의 지배체계는 단순한 현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남북 분단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대중문화 침투는 우리의 생활양식의 변화 및 변질을 가져왔다. 미국의 대중문화 유입에 따라 우리의 소비생활 등 생활 전반에 많은 변화를 가져온 것도 사실이다. 본질적인 면에서 해방기는 한국의 정치·사회·자본·문화 등 생활 전반에 걸쳐 미국의 대중문화 침투와 관련이 깊다.

이 같은 사실에 주안할 때, 해방기 미국의 대중문화 침식은 탈식민주의(post-colonialism) 관점에서 조망되고 분석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이 시기 미국에 의한 피식민 상황은 필연적으로 탈식민주의의 토대를 형성하고 있다. 탈식민주의는 호미 바바(Homi K. Bhabha)나 가야트리 스피박(Gayatri C. Spivak) 등에 의해 규정되는 바, 해방기 한국의 신식민지 상황과 긴밀하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탈식민(post-colonial)이란 “식민주의 종말 이후에 도래한 새로운 식민의 시기”²⁾를 가리킨다. 이러한 정의는 탈식민의 시기 구분과 관

구, 국학자료원, 1997, 9~20면 참조.

- 2) 탈식민(postcolonial)이란 ‘식민주의 종말 이후에 도래한 새로운 식민지 시기’를 가리킨다. 이러한 정의는 탈식민이 기본적으로 시기 구분과 관련된 역사적 의미에서 출발한 용어임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아이자드 아마드(Aijaz Ahmad)는 초창기 탈식민주의 이론적 논쟁에서 탈식민주의가 정치적 이론으로 통용됐던 사실을 지적하며(Peter Childs and Patrick Williams, 김문환 역, 『탈식민주의 이론』, 문예출판사, 2004, 17면.) 식민 지배로부터의 해방과 함께 국가의 형태, 지배와 전용의 양식, 잉여 생산의 유통 방식 등의 형태에서 초래되는 근본적인 변화를 설명하기 위한 개념임을 밝혔다.(Aijaz Ahmad, “The politics of literary postcoloniality”, *Race Class* 36:1, 1995, p. 5; Peter Childs and Patrick Williams, 김문환 역, 『탈식민주의 이론』, 문예출판사, 2004, 20면 재인용.) 이를 종합하자면 탈식민은 일반적으로 2차 세계대전의 종전 이후 초래된 식민·탈식민 국가의 정치적 지배 방식의 변화와 관련된 시기 구분에 사용되는 용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상, ‘신식민주의’라는 용어가 시사하듯 탈식민은 식민지였던 국가들의 완전한 정치적·역사적 해방의 획득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전통적인 식민주의 해체 이후 진화된 식민주의 등장은 새로운 제국의 출현을 알렸다. 이것에 관해 잔모하메드(Abdul R. janMohamed)는 1945년을 기점으로 그 이전의 지배 시대는 ‘지배적인(dominant)’ 시기였고, 그 이후는 ‘헤게모니적인(hegemonic)’ 시기라고 규정한 것처럼,

련하여, 해방기 미국에 의한 한국의 식민지 지배체계를 도식화하는 용어임 동시에 역사·사회적 의미의 용어임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본고에서는 채만식의 『미스터 방』(1946), 이태준의 『해방전후』(1946), 염상섭의 『양과자갑』(1947)을 연구 대상으로 하여, 해방기 미국 대중문화 유입 양상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 소설들은 해방기 한국 문단의 판도를 조각하는 토대가 될 뿐 아니라, 이 시기 미국에 의한 한국의 피식민 사회구조와 상황을 예시하고 있다. 또한 이 소설들은 해방기 미국의 후기식민성에 의한 사회·정치·문화 등 전반적인 지배와 관련이 깊다. 이와 더불어 해방후 미군정에 의한 문화·자본의 권력이 한국의 식민지적 정체성에 관한 현실 문제를 서사화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의 목적에 적당하다고 볼 수 있다.

기본적으로 이 작품들은 해방기에 창작되었다. 근대적 자각과 함께 탈식민주의 가능성을 담보하고 있다는 데 연구 가치가 있다하겠다. 염상섭의 경우 “자본주의를 인정하면서도 비판적 시각을 견지”³⁾했다는 점, 채만식의 경우 “8·15해방은 일제 말기의 식민지적 생존의 절망을 극복하고 작가로서 재출발하는 계기”⁴⁾가 되었다는 점, 이태준의 경우 8·15해방 이틀 후인 8월17일

식민주의가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 양상이 변화되고, 제국의 패권이 다른 국가로 넘어갔다고 주장한다.(Abdul R. JanMohamed, “The Economy of Manichean Allegory: The Function of Colonial Fiction”, *Critical Inquiry*, 12:1, 1985, p. 61~62참조: 배하은, 『해방기 염상섭 소설의 탈식민적 현실 인식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재인용.) 따라서 오늘날 대부분의 탈식민주의 이론가들은 탈식민을 변증법적 개념으로 이해하며, 첫째 “식민주의의 직접 통치에 의한 지배라는 의미에서 제국주의의 ‘포스트(post)’ 뒤에 오는 것”, 둘째 “경제적·정치적 지배의 권력관계의 일반적 해석 체계라는 의미에서의 제국주의의 ‘포스트’는 아니다”라는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Robert J. Young, 김택현 역, 『포스트식민주의 또는 트리컨티넨탈리즘』, 박종철출판사, 2005, 90~91면 참조) 결과적으로 탈식민은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식민주의의 굴레를 벗어나긴 했지만, 그와 동시에 또 다른 형태의 일반적인 식민주의 체계 안에 진입한 시기를 말한다. 본고에서는 식민주의에 대한 탈식민주의를 해방을 기점으로 하되, 근원적으로 일본으로부터의 해방이 미완의 탈식민이고, 이는 미국의 후기 식민성으로부터 새로운 형태의 식민지이므로, 우리의 탈식민의 시작은 일제강점기 식민주의에 대한 극복과 저항의 문제라 할 수 있다. 배하은, 『해방기 염상섭 소설의 탈식민적 현실 인식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 3) 하정일은 염상섭 문학이 식민지 시대뿐 아니라 해방기 전후에 이르는 문학 전반이 탈식민주의적 읽기의 내면적 가능성을 담고 있다고 말한다. 탈식민이 궁극적으로 자본주의 근대의 극복을 지향하는 것이라고 볼 때, 염상섭의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적 시각은 탈식민의 최소요건이 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염상섭은 적어도 비서구 혹은 주변부의 근대 실험에서 탈식민이라는 전망을 뚜렷이 자각한 작가가 될 수 있다. 하정일, 『염상섭 혹은 탈식민 문학의 세계성』, 『탈식민의 미학』, 소명출판, 2008, 196~197면 참조.
- 4) 8·15해방이 우리 민족사에서 새로운 하나의 시발점이었듯이, 채만식에게 있어서도 8·15해방

서울로 상경, “민족 상생 자멸의 파탄을 우려한 태도”⁵⁾를 보였다는 점 등의 내용들이 탈식민의 가능성과 관련해 매우 중요한 요소로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평가들이 중요한 것은 이 소설들이 해방기 미국에 의한 신식민주의 속성을 면밀히 조망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본고는 해방기 한국 단편소설에 나타난 미국의 대중문화 유입 양상을 점검하고, 신식민지 현실을 각층으로 하는 탈식민주의 경향에 대해 탐색하려 한다. 이와 더불어 채만식의 『미스터 방』, 이태준의 『해방전후』, 염상섭의 『양과 자갑』에 드러난 탈식민적 주체로서 글쓰기 양상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2. 해방기 탈식민적 주체로서 글쓰기

2.1. 미국 대중문화 유입과 신식민지 양상

2.1.1. 해방기 미국 대중문화와 현실 인식

주지하다시피 해방기 작가들의 작품은 일제 식민지 현실을 벗어나 미군정에 의한 새로운 지배체제와 미국 대중문화의 유입, 그에 따른 신식민지 현실 상황 묘사가 대부분이다.

채만식의 『미스터 방』은 해방기 미군정에 의한 통역정치의 부조리한 현실을 고발하고 있다. 주인공 방삼복이 미군 장교의 통역 일을 맡게 되면서 미국

은 일제에 의한 식민지적 절망을 극복하고 작가로서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계기가 된다. 8·15 해방공간은 일제의 억압적인 식민지 통치로부터 벗어났다는 점에서 우리 민족에게 환희와 감격을 안겨준 시기였지만, 동시에 식민지 통치가 남겨준 여러 가지 모순을 척결해야 하고, 새로운 외세의 개입에 적절히 대처해야 하는 역사적 과제를 짊어지고 있는 시기였다. 이러한 배경에는 8·15해방 자체가 타율적으로 주어졌 것이었으므로, 미국이라는 외세와의 저항은 일제강점과 다르지 않은 새로운 식민지 지배를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장성수, 『8·15 해방공간과 채만식문학』, 『국어문학』, 전북대학교 국어국문학회, 1984, Vol.24, 55~76면 참조.

- 5) 이태준은 8·15해방의 시점에 『개벽』을 통해 우리 문학의 나아갈 방향을 거론하는 자리에서, ①계몽적 작품의 중요성 ②역사소설의 신진개 ③아동문학에의 포진 ④신인들에 대한 기대(이태준, 『展望이기보다는 主張』, 『개벽』, 1946, 98~99면)를 주장하고 있다. 이태준이 주장한 이 네 가지 사항은 그가 당시를 새로운 문학이 발흥해야 할 중요한 시기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게 한다. 이 시기 이태준의 문학에 관한 새로운 인식 전환은 해방기 탈식민주의 문학의 길항이자 미국의 문화자본 등의 침투에 관한 신식민지적 지배 상황에 대한 전망이자 예시일 수 있다. 장영우, 『이태준 소설 연구』, 태학사, 1996, 264~265면 참조.

문화의 이면에 자리하고 있는 제국주의의 본질과 해방기 한국사회의 신식민 지적 모순상황을 그리고 있다. 또한은 작품 곳곳에 미국 대중문화를 배치시켜 당시 한국사회의 실태를 보여주고 있다. 채만식은 이러한 문화적 양태들이 현실적으로 한국사회에 어떠한 모순으로 작용하는지 폭로함으로써 해방기 현실 상황을 풍자하고 있다.

미국 장교는 담뱃불을 집어 들고 기물스러워하면서도 연방 들여다보다가 값이 얼마냐고
“하우 머취? 하우 머취?”
하고 묻는다.
담배장수 영감은, 삼십 원이라고 소래기만 지른다.
알아들을 턱이 없어 고개만 깨웃거리면서 다시금 하우 머취만 찾는 것을, 기회 좋을시고라고, 삼복이가 나직이
“더티 원”
하여주었다.
꽤 둘러다보더니
“오, 켄 유 스피크?”
하면서 사뭇 그러안을 듯이 반가워하는 양이라니, 아스러지도록 손을 잡고 흔드는데는 질색할 뻔하였다.⁶⁾

해방기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미군 병정’들이다. 당시 한국에 주둔한 미군은 정규 대학을 진학할 수 없거나 일정한 직업을 얻지 못한 직업적인 군인들이 대부분이었다. 장교들도 거의 전시에 급조적으로 임관된 자들이었다. 이들은 한국 사회에 대한 어떠한 지식을 갖추지 못했다. 군사·행정적 지식을 갖추었다라도 일본 식민자로부터 전달받은 것이 고작이었다. 이러한 지식은 지극히 왜곡되거나 편파적이어서 제대로 한국 사회를 바라보거나 한국 사람을 이해할 수 없었다.

이 시기 미군을 상대한 통역관의 회화수준도 ‘연합군 포로수용소에서 배운 영어토막’⁷⁾이 전부일 정도로 초보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군정은 급

6) 채만식, 『미스터 방』, 『채만식 작품선-태평천하』, 현대문학, 2010, 326면.

7) 채만식, 앞의 글, 322면.

조된 장교들에게까지 통역관을 붙게 함으로써 한국 국민들을 지배하는 권력 구조의 한 계층을 형성하기에 이른다.⁸⁾ 이는 미군 장교와 한국 기층민의 의사소통을 매개로 한 문화적 침투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미국의 신식민지 지배 체계로 기능한다고 볼 수 있다. 당시 미군정치의 권력구조는 일인 관리체계를 시행하면서 일제의 총독부를 유지시켜나갔다. 이는 일제로부터 권력을 계승하고자 하는 의도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권력의 창출이 아닌 권력의 유지라는 점에서 다시금 식민지 체계로의 진입을 예고하고 있다.

미스터 방이 그 걸쭉한 양치질을 노대 아래로 아낌없이 꼭 베알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그 순간이 공교롭게도, 마침 그를 찾을 온 S소위가 현관으로 일단 들어서려다 말고(미스터 방이 노대로 나오는 기척이 들렸기 때문에) 뒤로 서너 걸음 도로 물러나

“헬로.”

부르면서 웃는 얼굴을 쳐든 순간과 그만 일치가 되었다.

“에구머니!”

놀라 질겁을 하였으나 이미 베알아진 양치물은 귀퀴한 냄새와 더불어 백절폭포로 내리쏟아져 웃으면서 쳐드는 S소위의 얼굴 정통에가 죄르르.

“유 데빌!”

이 기겁할 자식이라고 S소위는 주먹질을 하면서 고향을 질렀고. 그 주먹이 쳐든채 그대로 있다가, 일변 허둥지둥 버선발로 뛰쳐나와 손바닥을 짹짹 비비는 미스터 방의 턱을

“상놈의 자식!”

하면서 어퍼컷으로 한 대 갈겼더라고.

—「미스터 방」 333면

8) 당시 미군정청 당국자들은 일인 관리를 이용하여 총독부 체계를 유지시켜나갔다. 이에 한국인들이 강한 반발을 하자 이들을 면직하고 그 자리에 한국인을 임명함으로써 이를 무마하고자 했다. 총독부를 관리하는 미군정 당국자들은 한국 국민과 소통을 매개로 기층의 국민들까지 통역관으로 추인하거나 연결시켜 나갔다. 문제는 이들 기층 통역관들의 부당한 행동이, 식민지 청산을 기대한 국민들에게 배신감으로 주었다는 것이다. 특히 미군정청의 요직으로 상승의 기회가 차단된 하부 통역관들의 경우 급료와 관련한 이권문제에 관계하여 부정부패를 저질렀다. 따라서 채만식의 「미스터 방」은 말단의 통역관의 부정과 횡포를 미국 문화 유입에 따른 자본주의의 모순과 병폐를 풍자하는 작품으로 볼 수 있다. 진덕규, 「미군정의 정치사적 인식」, 『해방전후사의 인식』, 한길사, 1980, 45~46면 참조.

때리고 맞는 것에도 미국 문화가 있고, 우리의 문화가 있는 것이다. 소설의 마지막 장면에서, 방삼복에게 가하는 미군 S소위의 ‘어퍼컷’은 인간적 수치감을 넘어선 ‘미국식 폭력’으로 볼 수 있다. 우리는 ‘귀싸대기’, ‘귓방망이’, ‘뒤통수’를 때리는 정도가 고작이다. 이것은 폭력이라기보다 인정에 의한 호소이자 소통의 한 단면이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미국식 폭력보다 그 속에 내재한 미국 대중문화의 본성에 있다. 일정한 급료를 지급받고 통역을 맡은 방삼복의 ‘실수’는 인정할 수 있지만, 그에 대한 S소위의 타격, 즉 미국 대중문화의 대가는 엄히 폭력적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밖에도 『미스터 방』은 미군정의 군사문화 출현과 함께 ‘미스터’, ‘맥주’, ‘미국 병정’, ‘양복’, ‘미국 장교’, ‘양과자’, ‘피머넌트’ 등 다양한 미국 대중문화를 보급함으로써 신식민지 지배 양상을 풍자하고 있다.

이처럼 해방기 미국 대중문화 유입은 제국주의의 식민지 ‘요구(demand)’ 안에서 논의될 수 있다. 프란츠 파농(Fanon, Frantz)은 식민지의 문화적 문제 현상을 언급하면서, 이것은 권력을 지닌 주체의 사회적 통치권의 담론 속에 생산·발전되어 나오는 것이라고 말한다.⁹⁾ 이는 식민지 경험자들이 그 자신들의 지위를 권력의 주체들과 유토피아적으로 연결 짓거나 동일시하는 현상은 문화적 소외와 왜곡에서 발현된다. 기본적으로 식민지 상황 아래 일상생활은 그 주체들의 사회적 관계들을 매개로 파생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피식민자가 자신보다 우월하다고 인식한 식민자의 행동을 모방하거나 똑같이 따라하는 것으로, 식민지 지배체계 아래 왜곡된 정서에 근거한다. 본질적으로 식민지 야망 속에는 피식민자를 문명화하고 근대화한다는 ‘미이라 문화’가 잠재되어 있다.¹⁰⁾

9) 파농(Fanon, Frantz)은 ‘착란의 성좌(constellation of delirium)’를 통해, 열등감에 사로잡힌 피식민자의 행동이 자신들보다 우월하다고 인식되는 식민자의 행동을 모방하거나 똑같은 신경증적인 지향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지적한다. 이는 식민자에 대한 피식민자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F. Fanon, "Concerning violence", *Wretched of the Earth*, Harmondsworth : Penguin, 1969, Homi K. Bhabha, 나병철 역, 『문화적 위치-탈식민주의 문화이론(수정판)』, 소명출판, 2012, 110면 재인용.

10) 국민의 신분은 식민자와 피식민자의 신분을 떠나 본래적으로 윤리적·합리적 성향의 궁극적인 표현이다. 국민의 사회적 본능은 진보적인 인간본성의 운명, 자연에서 문화로의 필연적인 회귀이다. 개인적인 이해에서 사회적인 권능으로의 직접적인 진입은 공공의 의지(법률 혹은 문화)의 표상구조 속에서 객관화 된다. 그 표상구조 속에서 심리(정신)와 사회는 그들의 차이를 손실 없이 역사적 총체성 속으로 투명하게 전이시키면서도 서로를 반영한다. 사회

이를 바탕으로 할 때, 채만식이 의도하는 풍자적 속성은 미국 대중문화의 자본주의적 논리를 부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는 많은 것이 함의되어 있겠으나, 무엇보다 해방기 미국 대중문화 유입에 따른 우리 전통과 인정의 해체, 신식민지 자본주의 지배체계에 물들어가는 한국의 현실상황을 폭로하고 있다는 점이다.

2.1.2. 식민지 현실 모순과 시대적 전망

이태준의 『해방전후』는 해방 전 일본의 억압에 의한 친일 집필 거부와 해방 후 미군정에 의한 신탁의 찬반을 놓고 문인들 간의 갈등을 그리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해방 전 이태준의 작품에는 자신의 삶과 문학에 관한 성찰과 반성의 태도가 강하게 드러난다. 그 첫 징후는 『장마』(1936)에서 볼 수 있다. 이후 『쾌강냉(漑江冷)』(1938), 『농군』(1939), 『밤길』(1940), 『토끼 이야기』(1941) 등의 발표를 통해 자기반성적 태도와 리얼리즘에 입각한 새로운 삶의 방향을 모색한다. 일제의 민족 말살정책의 말기적 모습을 드러낼 즈음 이태준은 식민지 지식인으로서 소극적인 삶과 문학을 반성한다. 이농민과 하층민의 궁핍한 현실에 시선을 주었다는 것은 이태준 자신의 인생에 특별한 의미가 있어 보인다. 더욱이 시대적 압력을 감당하지 못하고 일제에 순응하는 시국문을 발표하면서 이태준은 친일의 반성이 필요했던 것이다.¹¹⁾

해방 후 이태준은 일제의 강압에 의한 시대 모순과 자기반성을 필두로 하

적·심리적 소외 및 공격성의 형식들(광기, 자기혐오, 반역, 폭력)은 결코 국민적 권능을 결정하는 구성적인 조건으로나 사회적 본능 자체의 양가적인 효과로 인식되지는 않는다. 그것은 항상 소외된 현존들, 즉 역사적 진보의 폐쇄, 인간에 대한 궁극적인 오인으로 설명된다. Homi K. Bhabha, 나병철 역, 『문화의 위치-탈식민주의 문화이론(수정판)』, 소명출판, 2012, 109~110면 참조.

- 11) 이태준이 식민지 지식인으로서 현실상황에 미흡한 자신의 소극적 삶과 문학을 반성하는 것은 옳을 것이다. 해방 전 이농민과 하층민의 곤궁한 삶을 문학으로 묘사하였으나, 실상 자기변신의 노력은 결실을 거두지 못했다. 1940년대로 접어들면서 이태준은 작가적 역량을 표출할 길이 요원해졌고, 식민지 지식으로서 외적 요건도 더욱 악화되었다. 심지어 일제의 문화 말살정책으로 조선어로 글을 쓰는 일 자체가 어려워졌다. 이러한 상황에 이태준은 일제의 압력을 감당하지 못하고 끝내 일제에 순응하는 글쓰기를 강요받는다. 몇 편의 시국과 관련한 글을 발표한 뒤 이태준은 시골로 은둔한다. 『해방전후』는 이태준 자신의 문학적 반성과 함께 해방을 맞는 시점에서의 새로운 문학적 전환기를 의미하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장영우, 앞의 책, 146~147면 참조.

여, 채만식, 염상섭 등과 마찬가지로 미군정에 의한 새로운 지배체계를 거부하는 소설에 전념하면서 문학적 전환기를 맞이한다. 『해방전후』는 일본의 패망 직후 해방된 서울을 공간으로 미군정의 본질과 해방기 좌우익으로 갈라선 한국사회 내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이태준은 『해방전후』 곳곳에 갈등의 요인을 미국의 대중문화와 자본주의의 유입으로 규정하고, 그에 따른 한국사회의 신식민지적 모순상황을 묘사하고 있다.

그러나 현은 라디오는커녕 신문도 이삼 일이나 늦는 이곳이라 이 역사적 ‘팔월 십오일’을 아무것도 모르는 채 지나버리었고, 그 이튿날 아침에야 서울 친구의 다른 ‘급히 상경하라’는 전보로 비로소 제 육감이 없지는 않았으나 그러나, 여행 증명도 얻을 겸 눈치를 보러 주재소에 갔으되, 순사도 부장도 아무런 이상이 없었을 뿐……(생략)¹²⁾

해방기 대중문화 가운데 가장 활발한 양상을 보인 것이 ‘신문’과 ‘라디오’였다. 1945년 8월15일 정오, 라디오에서 일본 천황 유인(裕仁)으로부터 “우리의 착하고 충성스런 국민이여, 세계의 일반 정세가 오늘 우리 일본제국에 가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급박한 관계를 깊이 사려한 나머지 우리 제국은 부득이 비상조치로…….”¹³⁾ 시작되는 항복 메시지가 방방곡곡에 울려 퍼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태준은 일제 말기 산골에 은둔한 터라 이 소식을 라디오로 듣지 못하고 뒤늦게 친구로부터 서울로 상경하라는 것에 짐작할 뿐이다.

일제 때 구축된 라디오 방송국과 시스템은 해방 후 미국 대중문화를 전파하는 첨병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당시 텔레비전이 등장하기 이전의 한국사회는 라디오가 잡지와 신문을 압도했다. 따라서 해방기엔 라디오가 가장 중대한 언론매체의 힘을 발휘한 시대라고 볼 수 있다. 특히 해방기에 라디오가 가져온 가장 큰 변화는 미국 대중문화가 한국사회의 문화적 공간과 시간을 지배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점이다.

12) 이태준, 『해방전후』, 『이태준 작품선-해방전후』, 현대문학, 2010, 203면.

13) 백철, 『문학자서전-후편』, 박영사, 1976, 285면, 박현호, 『이태준과 한국 근대소설의 성격』, 소명출판, 1999, 256면 재인용.

지금 조선을 남북으로 갈라 진주해 있는 미국과 소련은 무엇으로 보나 세계에서 가장 실제적인 국가들인만치, 조선 민족은 비실제적인 환상이나 감상(感傷)으로가 아니라 가장 과학적이요, 세계사적인 확실한 견해와 준비가 없이는 그들에게 적정한 응수를 할 수 없다는 것……(생략)

-『해방전후』, 221면

남북으로 갈라 선 상황에서 미국 대중문화는 국민적 대중심리를 그 영향권 안에 편입시키는 맹목적 이데올로기로 급부상한다. 여기에 이태준의 의도는 ‘가장 과학적’이고 ‘확실한 견해와 준비’를 통해 미국의 대중문화 침투를 방지하자는 데 있으며, 미국 자본주의에 의한 신식민지 지배체계에 저항하자는 데 의미가 있다 하겠다.

이를 토대로 할 때, 해방기 미국의 대중문화 침투는 복잡하면서도 폭넓은 양상을 지닌다. 이것은 해방 후 당시 우리가 처한 현실이자 미국의 지배 야욕을 보여주는 단면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해방기 미국 대중문화는 지금까지 한국 문화를 규정짓는 중요한 매개가 된다. 한편 해방기 미국 대중문화는 신식민지 지배이데올로기를 강요하는 문화로서, 타율적이며 강제적인 산물로 파악된다.

이러한 견해는, 이태준의 『해방전후』에 나타나다시피 해방 후 일제 잔재를 청산하지 않은 채 남과 북으로 갈라 선 상황에서 미군정에 의한 통치를 반영하는 데서 찾을 수 있다.

2.1.3. 미국 후기식민성에 대한 저항 주체

해방과 더불어 염상섭은 10여년의 절필생활을 청산하고 문학적 글쓰기를 재개했다. 해방은 염상섭에게도 일제 식민주의 잔재를 해소하고자 하는 문학적 의미를 갖게 했다. 만주에서 귀국한 염상섭이 해방 이후 처음 발표한 중편 소설 『해방의 아들』(『新文學』, 1946)은 해방기 일제 잔재와 식민지적 정체성을 해소하는 통과례였다.

해방 이후 『해방의 아들』을 비롯해 『이합(離合)』, 『재회(再會)』, 『양과자감』, 『난류』 등은 식민지 시대 발표된 작품들과는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해방 전 염상섭의 소설이 식민지 현실을 묘사한 ‘조선자연주의’¹⁴⁾ 성격이 강했

다면, 해방 이후 발표된 작품들은 ‘방관자적 태도의 탈이념’¹⁵⁾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그 이유로는 해방 전 『삼대』, 『만세전』 등이 사회현실과 개인의 관계에 대해 지속적으로 보여준 모습을 사례로 들 수 있다. 또한 해방기 염상섭 소설들은 대체로 개인과 사회현실의 관계보다는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한 ‘풍자’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947년 발표한 『양과자집』은 해방기 미군정에 의한 미국 대중문화 침탈을 통한 새로운 지배체계의 현실상황을 묘사하고 있다. 우선 제목에서 ‘양과자’가 암시하는 미국 대중문화의 속성은 달콤하면서도 부드러운 인상을 준다. 해방 후 처음으로 맞본 양과자는 일제 식민지 잔재를 망각하게 만들고, 우리 전통의 미각까지 변질시킨다.

『양과자집』은 미국 유학까지 다녀오고도 ‘영어 통역’으로 근근이 생활하는 주인공 ‘영수’를 통해 당시 미국 대중문화에 대한 한국인의 자기정체성을 확인하게 한다.

“내 영어는 어디 집 언어대라구 배우고, 통역(通譯)하라고 배운 영어던가? 통역에나 써먹자고 미국 가서 공부했을라구…….”

영감의 목소리다. 목소리로 들어 나이는 한 사십 넘었을 것 같다.

차면 턱에 섰던 안라(安羅)는, 그러지 않아도 영문의 번역을 청하러 나온 길이라, 영어 노래 통에 귀가 반짝 띄어서 손에 들은 종잇조각을 들여다보며 귀를 기울이고 섰는 것이다. 안라는 뒤통에 사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몰라도 주인이 영어를 안다는 말을 일전부터 들었기에 지금 이 타이프라이터-로 찍은 공문서(公文書)를 급한 대로 읽어보아 달라고 가지고 나온 길이다. 안라는 다시 소리

14) ‘조선자연주의’라는 용어는 임화로부터 시작되었다. 임화에게 있어서 자연주의란 “문학으로부터 전체적(역사적·사회적) 관심이 민첩하고, 개성적인 자율이라는 것이 당면의 과제가 된 시대의 양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임화, 『소설문학의 20년』, 동아일보, 1940.4.12.

15) 식민지 시대 발표된 『표본실의 청개구리』, 『삼대』, 『만세전』 등의 작중 인물들에서 드러나는 이념지향 혹은 중립적인 태도는 해방기에 접어들면서 냉정한 방관자적 태도를 보인다. 엄밀히 말해 식민지 시대 소설들이 염상섭 자신의 직접적인 표출이었다면, 해방기 소설의 양상은 냉철한 제3자적 시각에 의한 사회현실의 반영인 것이다. 이는 소설의 탈주체로서 작가가기보다는 탈이념의 방관자적 입장의 작가로 변모해가고 있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즉 좌우의 이념적 선택이 가능했던 해방기에 제3의 길을 모색했던 염상섭은 좌우의 선택보다 탈이념의 방관자적 입장이 오히려 작가로서 냉정했을 것이다. 이러한 길에서 염상섭은 사회 현실인식을 소설의 발판으로 삼되, 탈이념적 인물을 통한 사회 풍자에 심혈을 기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병순, 앞의 책, 297~298면 참조.

를 내려다가, 또 방 안에서 중얼중얼하고 영감의 목소리가 나기에 그대로 멈춰 섰다.

“그 영어 한 자에 돈으로 따져도 몇 십 원 몇 백 원으로 논지가 아니거든, 미국 가서도 생돈 갖다 쓰면서 배운 거 아니냐! 허허.”¹⁶⁾

해방기 염상섭 소설의 가장 두드러진 점은 미국 대중문화의 적극적인 반영이다. 염상섭은 미국 대중문화를 단순히 옮겨놓는 데 그치지 않고, 미국 대중문화 유입과 함께 ‘자본’과 ‘이념’까지 포괄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보다시피 『양과자갑』은 해방기 미국 대중문화에 적응해가는 군상들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이는 해방 이전 염상섭 소설에 나타난 인물과 대조를 이루는 모습이기도 하다.

『양과자갑』은 주인공 영수를 내세워 ‘영어 통역’을 통해 미국식 자본주의를 정당화 하고 있으면서, 반면 독자로 하여 이웃 간 해체된 정서를 대면토록 하고 있다. ‘안라(安羅)’라는 이름을 내세워 당시 미국에 대한 환상을 드러내고 있으며, 영어 ‘번역’¹⁷⁾에 대한 문화적 전이의 이질감을 반영하고 있다. 또한 ‘타이프라이터’와 같은 당시로서는 생소한 물건을 통해 미국 대중문화의 보편성을 고발하고 있다.

“아, 따님이 영어를 그렇게 잘 하세요?”

안라는 눈이 더 둥그레지며 놀란다. 이름은 서양여자 같은 이름을 붙이고, 양장에, 얼굴을 서양여자는 못 되어도 튀기만큼이라도 보이려고 갖은 솜씨를 부려서 도깨비탈은 썼으나, 영어의 비력질을 다녀야 하느니만치, 매우 안타까운 모양이오, 영어를 한다는 사람이면, 더구나 여자로서 영어를 하다니 부럽고 저만치 쳐다보이는 모양이다. 그러나 영어를 하는 남편과 딸을 둔 이 부인에게는 조금치도 경의를 표하는 눈치가 없이 명령하듯이 때만 쓰니, 이 부인이 영어를 몰라서 그러는지, 집 한 칸이 없고 결방살이를 하는 이재민이라 해서 그러는

16) 염상섭, 『양과자갑』, 『염상섭 중·단편선』 글누림출판사, 2007, 267면.

17) ‘번역’은 지배체계의 바탕을 이루는 문화적 소통의 본질이다. 또한 문화적 전이(번역)의 수행과정에 나타나는 이질적인 요소의 맹아이기도 하다. 즉 과일의 속과 껍질처럼 어떤 일체감을 이루고 있는 원본과는 달리 번역 행위를 통해 지배자의 논리와 의도를 살포하는 의미작용의 형식에 의해 식민자에게 주입시키는 효과를 지닌다. Homi K. Bhabha, 앞의 책, 478~479면 참조.

지 알 수가 없다.

-『양과자잡』 273면

염상섭은 단순히 소설의 정황을 위해 영어 통역과 번역, 미국식 이름과 물건을 등장시킨 것은 아닐 것이다. 이는 해방기 염상섭 소설이 해방 이전의 식민지 현실상황을 적시하던 것과 달리 보다 냉정한 현실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염상섭의 문학에 주어진 해방 전 ‘식민지 여건’¹⁸⁾과 해방 후 ‘해방기 기획’¹⁹⁾은 식민지라는 본질에 비추어 크게 다를 것이 없다고 본다. 그의 리얼리즘 문학 양식을 진보적 현실반영의 맥아로 적용한다면, 해방 전 일제 식민지 상황과 해방 후 미군정의 대중문화 유입에 의한 신식민지 통치는 본질 면에서 같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염상섭은 『양과자잡』을 통해 해방기 미국의 대중문화가 한국인 정서와 맞물리어 민족정체성을 어떻게 저버리고 있는지 그 양태를 보여주고자 했으며, 당시 미군정에 의해 침식당하고 있는 한국의 문화·사회·정치적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자 했다. 이와 더불어 일제 잔재 청산을 뒤로 미룬 미국의 새로운 식민지 건설을 막아서고자 했다.

이밖에도 『양과자잡』은 ‘퍼머넌트’, ‘토치카’, ‘양장미인’, ‘양요릿집’, ‘호텔’, ‘댄스홀’, ‘전기스토브’, ‘미쓰’, ‘미세스’, ‘캔디’, ‘초콜렛’ 등 다양한 미국 대중문화 유형을 드러내고 있다. 이를 통해 해방기 미국의 대중문화 유입과 그에 따른 자본주의의 보편화를 밝히고, 그 이면의 신식민지 지배체제를 정당화 하려는 미군정의 본질을 보여주고 있다.

18) ‘식민지 여건’이란 일제 식민지 시기 염상섭이 추구한 문학적 경향을 의미한다. 즉, 해방 전 조선자연주의의 기본적인 특징으로, 당대 식민지 현실의 적극적인 수용을 위한 글쓰기가 그것이다. 조선의 현실을 사실주의 기법으로 형상화 한 이러한 점들을 근거로, 염상섭 소설은 신소설 이후 한국 근대소설의 독자적 위치를 형성해 왔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식민지 여건’이란 해방 전 사회현실 수용에 있어서 사실주의 경향이 강한 염상섭 문학의 총체를 말한다.

19) ‘해방기 기획’이란 해방기 염상섭이 새롭게 추구한 문학적 글쓰기의 지칭을 의미한다. 미군정 시기 미국 대중문화 유입에 대한 사실주의적 태도, 미국의 신식민지 자본주의에 대한 고발 문학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양과자잡』, 『효풍』 등은 일본 제국주의의 침탈과 관련한 역사적 관점을 적시하고 있으며, 따라서 ‘해방기 기획’이란 해방기 조선의 신식민적 현실 문제를 해소하고자 한 염상섭의 문학적 글쓰기를 말한다.

2.2. 근대적 자각으로서의 탈식민적 정체성

2.2.1. 내부자 시선에 의한 미국 대중문화 풍자

8·15해방 이후 채만식의 문학은 현실비판의 내용이 주를 이룬다. 특히 미국에 대한 채만식의 인식은 새로운 외세의 개입으로 보고 있으며, 이를 우리 민족이 지닌 자주적 역량의 해체의 시기로 간주하고 있다.²⁰⁾ 그에 따라 일제 식민지 잔재 척결의 유보, 미군정과 결탁한 민족 반역자들의 기회주의적 진출과 특세의 기회를 해방기 혼란과 가치전도 양상으로 파악하고 있다. 여기에 해방기 현실상황을 과거 일제 식민지 상황과 동일한 것으로 평가함으로써 해방 이후 채만식의 문학적 역량은 신식민지 지배체계에 대한 저항으로 일관된다고 볼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미스터 방」은 주인공 방삼복이 연합군 포로수용소에서 배운 영어토막으로 미군주둔지 장교 S소위의 통역가로 채용되면서 겪는 일상을 그리고 있다. 채만식은 이 소설을 통해 해방기 일제 잔재 청산의 허구와 미국 대중문화의 수용에 따른 새로운 식민지 도래를 풍자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서울로 올라와서는 현저동 비탈의 다 찢부러진 행랑방을 얻어 살면서, 처음 일 년은 용산 있는 연합군 포로수용소엘 다니며 입에 풀칠을 하였고-이 동안 그는 상해에서 귀로 익힌 토막 영어가 조금 더 진보되었고.

다시 일 년이나는, 그것 역시 상해에서 익힌 것을 밀천 삼아 구두 직공으로 구둣방엘 다니며 그러저럭 살았고, 그러나 일본이 싸움에 지느라고 구두는 너무 헤트러 가죽이 동이 나서 구둣방이 너나없이 문을 닫는 바람에, 할 수 없이 이번엔 께짝 한 개 걸머지고 신기료장수로 나서고 말았다.

-「미스터 방」 321면

이 소설은 제목에서부터 미국 대중문화 침식에 강한 거부감을 안고 있다. 당시 유행을 이루었을, 성(姓)씨 앞에 붙인 ‘미스터’는 주인공을 추켜세운 것

20) 이와 반대로, 일제강점기 문화 말살과 억압정책의 현실상황은 채만식의 문학을 관류하는 문학관에 치명적인 압력으로 작용한다. 예컨대 『탁류』나 「天下太平春」 이후의 일련의 작품들, 「패배자의 무덤」(1939), 「냉동어」(1940) 등은 당시 작가의 무기력과 분열 증세를 엿볼 수 있다. 「여인천가」(1944)에 이르러 채만식은 극도의 패배주의적 친일 작품을 남김으로써 대일협력의 오점을 남기게 된다. 장성수, 앞의 글, 55~56면 참조.

이러기보다 미국 문화에 대한 거부감 내지 부정적 의미의 풍자로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우리 민족은 함부로 이름을 뒤엎거나 성씨를 가리지 않기 때문이다.

상해에서 배운 방삼복의 ‘영어 토막’은 해방기 미국 문화의 전초적 단서이자 생활의 수단이 된다. 또한 상해에서 익힌 ‘구뚝방’ 일로 근근이 생활을 이어가는 방삼복에게 우리 전통의 농경문화는 낡고 보잘 것 없는 것으로 치부된다. 그런 방삼복의 현실 시각은 방관자인 듯하지만, 실상은 그 속내를 다 꿰뚫고 있다.

일본 항복과 함께 문을 닫은 ‘구뚝방’들이 일제 잔재의 청산을 의미한다면, 여전히 ‘구뚝방’ 일로 생활을 떠나가야 하는 방삼복의 현실이 곧 해방기 한국의 현실상황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다. 논리적으로 일제는 망하였지만, 그 속에 남은 기득권자들의 몸은 여전히 일제 잔재를 끌어안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구뚝방’이 문을 닫았음에도 구뚝통을 걸머지고 집을 나서야 하는 방삼복의 눈에 ‘미국 병정’들과 ‘꼬마차’가 넘쳐나는 것도 이러한 논리에 근거한 설정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엠병철! 그놈에 경제제가 다 어디루 가 뒤흔어. 독립은 우라진다구 독립을 헌담.”

석양 때 신기료 퀘짜 어깨에 멘 채 핫김에 막걸리청안으로 들어가, 서너 사발 들이키고는 그는 이렇게 게걸거렸다.

그럭저럭 구월도 열흘이 되고, 서울 거리에는 미국 병정이 꼬마차와 함께 그득히 퍼졌다.

그 미국 병정들이, 거리를 구경하면서 혹은 물건을 사러면서 말이 서로 통하지를 못하여 답답해하는 양을 보고 삼복은 무릎을 탁 쳤다.

그러나 슬플진저, 땀과 땀에 찌든 이 누더기를 걸치고는 가망이 없을 말이었다.

‘무슨 도리가 없을까?’

반일을 궁리를 하다가 정오 때에야 한줄기 서광을 얻었다.

- 「미스터 방」 324면

오히려 우리 민족의 독립을 닦하던 방삼복은 거리에 넘쳐나는 미국 병정들

이 소통하지 못하는 광경을 보고 궁리 끝에 답을 얻는다. 미국 병정들의 통역을 자처하면서 방삼복은 미국의 개입에 의한 해방기 한국 현실을 망각하게 된다. 그나마 곤궁한 생활에 벗어나게 되면서 미국식 의복과 가구 등 생활습성까지 동경하게 된다.

이를 통해 민초들의 사고와 의식, 일상의 생활환경까지 점령당하는 과정을 채만식은 묵묵히 방관자적 시각으로 그려내고 있다. 미국의 개입으로 과거의 식민지 모순이 되풀이 되는 현실 앞에서 무력할 수밖에 없는 해방기 민초들의 삶은 여전히 고통스럽게 묘사되고 있다. 이러한 특성이 채만식 소설이 지난 풍자적 속성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 소설은 미국 대중문화에 대한 민초들의 거리낌 없는 선호를 지적하면서, 장차 미국의 자본주의에 의한 신식민지 상황을 예고 내지 경고하고 있다.

2.2.2. 일상 담론으로서 비판적 신식민지 문화

해방기 이태준은 『해방전후』를 통해 해방 후 우리 문학의 나아갈 방향을 거론하는 자리에서 국민을 일깨울 수 있는 계몽적 작품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우리 민족의 참모습을 실현할 수 있는 역사소설의 새로운 전개를 첫째로, 장차 민족의 동량이 될 아동들을 위해 아동문학의 적극적 발휘, 해방 이후 문단을 일으킬 신진들에 대한 과감한 기대를 주장한 바 있다.²¹⁾

이태준이 일제강점기에 발표한 작품 중에는 ‘동반자적 성격’²²⁾이 드러나는 것도 없지 않다. 식민지 현실에 입각하여 당시 하층민들의 실상을 객관적이고 사실적으로 폭로한 소설도 적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민족주의적이며 상고주의 정신이 강하다고 평가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KAPF의 계급문학에 배타적이었다는 이유에서다.

해방을 기점으로 이태준은 조선문학가동맹의 핵심 성원으로 활동하면서 작품 곳곳에 사회주의적 색채를 담으려고 시도했다. 그 일면에는 미국의 후기 식민성에 대한 거센 저항력이 무장되어 있었고, 이는 고스란히 해방기 소설에 설정되었다.

21) 이태준, 「전망이기보다는 주장」, 『개벽』, 1946, 98~99면 참조.

22) 방준원, 『이태준론』, 『백민』, 1946. 10. 28면, 박헌호, 앞의 책, 260면 재인용.

대표적으로 「해방전후」는 ‘현’과 ‘김직원’이라는 허구의 인물을 등장시켜 해방 전 이태준의 모습과 해방 후 미국 문화의 침식, 신식민지 자본주의 유입에 따른 이태준 자신의 심경과 고뇌를 묘사하고 있다.

북쪽에서는 소련군이 일본군을 여지없이 무찌르며 조선인의 고통에 사무친 원한을 이해해서 왜적에 대한 철저한 소탕을 개시한 듯 들리나, 미국군은 조선 민중의 기대는 모른 척 하고 일본인들에게 관대한 뼈라부터를 뿌리어, 아직도 총독부와 일본 군대가 조선 민중에게 ‘보아라 미국은 아직 일본과 상대이지 너희 따위 민족은 문제가 아니다’ 하는 자세를 부리기 좋게 하였고, 우리 민족 자체에서는 ‘인민공화국’이란, 장래 해외 세력과 대립의 예감을 주는 조직이 나타났고, ‘조선문화건설 중앙협의회’와 선명히 대립하여 ‘프롤레타리아예술연맹’이란, 좌익문학인들만으로 문화운동 단체가 기어이 일어나고 말았다.

—「해방전후」, 208면

이태준은 해방 후 좌익문학인들로만 구성된 문화운동 진영을 작중인물인 ‘현’을 통해 그 실상을 말하고 있다. 이들은 머지않은 미래의 해외 세력, 즉 미국과 대립의 예감에서 장차 국가적 비운과 문화적 쇠운을 직감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 근거로, 해방기 이태준은 「문학자의 자기비판」을 통해 “나는 8·15 이전에 가장 위협을 느낀 것은 문학보다 문화요, 문화보다는 다시 언어였다”²³⁾라고 말한 바 있다.

이러한 이태준의 발언은 일제강점기 일본어로 시·소설을 창작하거나 시국과 관련된 글을 썼던 모든 문인들의 철저한 반성을 촉구한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그의 말 속에는 해방 전 자신의 행위에 대한 반성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해방전후」 작품 곳곳에서 드러난 일본 형사로부터 글쓰기를 강요받는 대목은 이태준이 말하고 있는 반성의 요체라 할 수 있다. 어떤 의미에서든 일제를 위해 글을 쓰는 것은 반민족적 문학행위이며, 여기서 문학은 곧 문화이면서 언어라는 것이다. 따라서 해방 전 일본을 위한 문학은 철저히 반성되어야 하며, 해방기 미국의 대중문화 역시 우리의 언어, 문학, 문화가 경계해야 할

23) 이태준 외, 「문학자의 자기비판」, 『중성(中聲)』, 1946. 2. 45면.

대립물이라는 것이다.

이미 미국 군대가 들어와 일본 군대의 총부리는 우리에게서 물러섰으나 뼈라가 주던 예감과 마찬가지로 미국은 그들의 군정(軍政)을 포기하였다. 정당(政黨)은 누구든지 나타나란 바람에 하룻밤 사이에 오륙십의 정당이 꾸미어졌고, 이승만 박사가 민족의 미칠 듯한 환호 속에 나타나 무엇보다 조선 민족이기만 하면 우선 한테 뭉치고 보자는 주장에 그 속에 틈이 있음을 엿본 민족 반역자들과 모리배들이 다시 활동을 일으키어, 뭉치는 것은 박사의 진의와는 반대의 효과로 일제시대 비행기 회사 사장이 새로 된 것이라는 국립항공사에도 부사장으로 나타나는 것 같은 이례로, 민심은 집중이 아니라 이산이요, 신념이기보다 회의(懷疑)의 편이 되고 말았다.

—「해방전후」, 214면

이태준의 반미의식은 과거 친일 행각의 반성에서 나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이무영과 함께 번역한 『대동아전기(大東亞戰記)』는 친일행위로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이 작업을 명분으로 이태준은 일제 말기 붓을 쥐고 침묵을 지키기보다는 “우리 민족에게 해독을 끼치지 않을 정도로는 조선어를 한마디라도 더 써서 퍼뜨린 편이 나았다”²⁴⁾고 말했다. 이는 일제의 한반도 강점 행위를 예찬한 글을 번역했던 자신의 행적을 반성하는 태도로 이해할 수 있다.

이태준 소설의 작중인물 가운데 가장 큰 계층을 형성하는 것은 지식인이다. 해방기 그는 미국에 의한 새로운 식민지 조국의 현실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기 위한 방편으로 지식인의 시각을 빌렸다. 그의 현실인식은 미국의 문화적 침탈을 거부하는 양상을 보였다. 한편 과거 일제강점기 식민지 조국의 사회적 현실에 대한 고민이 적극적으로 투영되면서 반미의식으로 발전해갔다.

이러한 점을 토대로, 「해방전후」는 ‘현’의 시각을 통해 8·15해방은 식민지 상황에서 벗어남과 동시에 미국에 의한 새로운 식민지 지배체계의로의 진입을 역설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지식인의 시각에서 미군정에 의한 반탁과 미국 대중문화에 대한 거부, 미국 자본 침탈을 부정적 시각에서 묘사하

24) 이태준 외, 앞의 글, 47면.

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2.3. 근대적 국권 회복을 위한 해방기 기획

『양과자갑』은 해방기 미국 문화의 양태를 있는 그대로 보여줌으로써 급속한 자본주의의 유입과 정치·사회·문화적 신식민지 지배체계의 일면을 적시하고 있다. 이것은 염상섭이 단순히 식민자로서 소설을 쓰기보다는 탈식민적 주체로서 문학적 글쓰기를 시도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양과자갑』은 소설 곳곳에 영어 통역과 번역을 둘러싼 미국 대중문화의 실상을 드러내고 있다. 주인공 영수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미국 대중문화를 무방비하게 노출시키면서, 해방기 탈식민주의 국면을 명시적이며 풍자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무언가 좀 뜯어보려므나.”

어린애가 없고 규모로만 사는 이 집에 ‘캔디’나 ‘초콜렛’이니 하는 것이 생전 들어와 본 일도 없는지라 모친도 구경이나 하고 싶은 모양이다. 보배가 과자갑을 다시 들어서 거죽에 싼 ‘파라틴 지(紙)’를 뜯으려니까 밖에서 “음!”하고 부친이 들어오는 기척이 난다.

보배는 뜯던 과자갑을 든 채 부엌문을 열고 뜯로 나섰다. 모친도 뒤따라 나왔다. ‘그건 뭐냐?’

부친은 보배의 손으로 눈이 먼저 갔다.

“안에서 내은 과자예요.”

“흐응…… 그건 어째?”

하고 영수는 아내에게로 눈을 돌린다. 오다가 선술집에라도 들렀는지 주기를 띤 낮빛이다.

“어디를 가셨다가 이렇게 늦으셨소?”

“응, 오다가 뉘게 끌려서 빈대떡집에 들어가보았지.”

빈대떡이란 선술집 같은 데인 모양이었다. 빈대떡을 몇 조각이나 먹었는지, 영수는 매우 신기가 좋았다.

—『양과자갑』 290면

미군정 사회에서 영어 통역은 하나의 권력일 수 있다. 미군 장교든 병사든

의사소통을 매개로 여러 가지 불법적인 이권을 누린 것은 기정사실이다. 영수의 딸 ‘보배’는 ‘양장미인’으로부터 받은 초콜렛을 빌미로 다음날 미군 ‘리처드 스펀’을 만나리란 기대에 차 있다. 이것은 양장미인이 보배를 통해 ‘영어비력질’을 일삼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배 역시 양장미인을 통해 미국 대중문화 영역 안으로 편입하려는 욕망을 갖게 된다. 이처럼 보배와 양장미인의 욕망의 배후에는 영어를 매개로 한 신분상승이나 문화적 성취를 위한 식민자의 언어적 지배 이데올로기가 자리하고 있다. 결국 식민자의 지배 이데올로기는 일차적으로는 언어를 통한 의사소통과 양과자를 비롯한 각종 물리적 무상제공을 매개로 피식민자 위에 군림하고자 하는 것이다.

한편 염상섭은 먹거리 하나에도 미국 대중문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이는 미국 대중문화의 본질과 자본주의적 사고를 고발하는 장치로 작용한다. 기성세대는 ‘빈대떡’으로 기울지만, 신세대는 ‘양과자’에 쓸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세태를 풍자함으로써, 염상섭은 미국 대중문화의 지배 야욕을 폭로하고 있다.

“그것도 영어 덕이라우. 우리는 영어 덕두 고작해야 그런 것밖에 더 걸린답니까!”

하며, 또 영어 덕을 쳐들며 코웃음을 친다.

“흠……, 그건 또 무슨 소리야?”

영감은 눈살이 찌푸려졌다.

“제가 또 편지를 번역해 주었다우. 쉰 딸이 제게 온 영어편지를 가지고 나와서 읽어달래서 번역을 해주었더니, 그 인사루 지금 손수 가지구 나왔구먼…….”

……<중략>……

“그래 이걸 딸자식에게 먹여야 옳단 말야? 보배 입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앉았으란 말야?”

하는 소리와 함께, 획 하더니 과자갑이 땅에 툭 떨어지는 소리가 난다. 그 소리와 함께 영수는 훌쩍 자기 서재로 들어가버린다.

—「양과자갑」, 293면

이처럼 「양과자갑」은 ‘영어 통역’을 대가로 받은 ‘양과자’를 통해 기성세대와 신세대 간의 문화적 이질감을 낳게 한다. 이러한 이질감은 점진적으로 미

국 대중문화에 빠져들게 하는 매개가 된다. 이것은 미군을 상대로 영어를 '번역'할 수 있는 주인공을 내세워 제국의 언어 저변에 깔린 식민자와 피식민자 간에 개입된 지배담론과 권력관계를 재구성하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양과자갑』은 '양과자'라는 미국 대중 먹거리를 통해 한국을 예속시키려는 미국의 후기식민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탈식민주의 논리가 성립되는 것이다.

이 점에 주안해보면 『양과자갑』은 염상섭의 '해방기 기획'의 의도로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해방 이전 우리 민족이 겪은 일제 식민지 상황이, 해방 후 여타 지배자에 의해 얼마든지 다시 재현될 수 있다는 '양가적 식민지 환상'²⁵⁾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양과자갑』은 해방기 미국 대중문화가 '자본주의'로 발화하는 신식민지 지배체계를 보여주는 작품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서구의 문화적 양태를 토대로 시각적·정서적 물증을 근거화 하여 묘사함으로써 당시 미국에 침식당하고 있는 한국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제시한 소설로 평가할 수 있다. 이를 근거로 할 때, 염상섭의 『양과자갑』은 해방기 미국에 의한 신식민지 자본주의 비판하는 동시에 탈식민적 주체로서 글쓰기를 지향한다고 볼 수 있다.

3. 결론

본고는 해방기 소설 가운데 채만식의 『미스터 방』, 이태준의 『해방전후』, 염상섭의 『양과자갑』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해방 후 미군정에 의한 대중문화 유입 양상과 그에 따른 한국의 현실상황을 살펴보았다.

25) '양가적 식민지 환상'은, 먼저 식민지 지배와 통제의 조건하에서 원주민, 피식민자가 자발적으로 개화할 수 있다는 하나의 목적론을 제시한다. 둘째, 다른 식민지적 환상은 피식민자의 자격을 부정하면서, 자치의 능력 곧 독립성이나 서구적 시민성의 권위를 식민권력의 공적인 형태나 직무로 돌림으로써 가시적 형태를 취한다. 이 같은 식민지 가시성은 탈식민의 이데올로기적 공간이 절박한 정치·경제적 조건들과 협동하며 기능한다. 따라서 『양과자갑』은 식민지 권력의 가시성이 식민주의 정치·경제 구조가 문화와 자본의 이데올로기와 합동하며 병존하는 과정에 실현될 수 있으므로, 이는 염상섭의 '해방기 기획'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양가적 식민지 환상은, 원초적인 환상에서의 욕구와 욕망의 놀이와 구조적으로 유사하면서도 식민지적 환상으로부터 분열의 계기를 덮어버리려 하지 않는 점에 유의해서 이해하여야 한다. Homi K. Bhabha, 나병철 역, 앞의 책, 192~194면 참조.

「미스터 방」은 해방기 미군정의 군사문화에 의한 통역정치에 부조리한 현실을 고발하고 있으며, 미국 대중문화 침투가 당시 한국사회에 어떠한 모습으로 작용하는지 폭로하고 있다. 미군정의 권력구조는 일제로부터 물려받은 것으로, 권력의 유지라는 점에서 신식민지 체계로 진입을 예시한다고 볼 수 있다.

「해방전후」는 해방기 미국 대중문화 유입으로 한국사회의 문화적 공간의 지배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지식인의 시각에서 미군정의 반탁과 미국 대중문화에 대한 거부, 미국 자본 침탈의 부정적 묘사를 통해, 8·15해방이 일제 식민지 상황을 물려받은 미국의 새로운 식민지 지배체계로 보았다. 이것은 해방 후 미군정에 의한 지배 이데올로기가 현재 한국의 대중문화와 자본주의를 규정짓는 중요한 매개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양과자갑」은 해방기 미국 대중문화 양태를 보여줌으로써 급속한 자본주의의 유입과 그에 따른 정치·사회·문화적 지배체계를 지적하였다. 또한 영어 통역·번역(전이)을 내세워 제국의 언어 저변에 깔린 식민자와 피식민자간의 지배담론과 권력관계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문화적 침투는 미국의 후기 식민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당시 한국의 탈식민주의 상황을 정확히 제시한 소설로 평가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할 때, 위의 세 소설들은 해방기 외세 개입에 대한 내부자적 고발 소설로서 탈식민적 시각을 견지한다고 볼 수 있다. 그 근거는, 「미스터 방」에 나타난 통역정치에 부조리한 현실을 기반으로 한 해방기 사회현실을 구성하는 민족적 주체에서 확인된다. 또한 「해방전후」에서 일제 식민지와 해방 후 구분 없는 민족정체성의 서사적 균열에서 구체화 된다. 이와 더불어 「양과자갑」에 드러난 제국주의 언어를 둘러싼 지배담론과 그에 맞서는 민족적 길항에서 찾을 수 있다.

본고는 「미스터 방」, 「해방전후」, 「양과자갑」의 주제를 ‘해방기 미국 대중문화 유입’과 그에 따른 ‘신식민지 지배체계’로 보았고, 주제의 바탕을 이루는 단서로 탈식민주의에 주목했다. 이러한 실정에 비추어 해방기 미군정에 의한 대중문화 유입 양상은 한 가지로 요약할 수 없는 다층적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미군정에 의한 대중문화 침투 양상이 문화적 목적성보다 당시 미국의 지배 권력에 의한 신식민지적 현실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음을 암시한

다고 볼 수 있다.

이 같은 소설들이 한국 문학사에 있어서 문학적 가치를 획득하는 이유는 해방기 신식민지 현실 문제를 직간접적으로 거론하고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를 토대로 이 소설들의 주요 관점을 탈식민주의 시각 안으로 편입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결과적으로 탈식민주의 소설이 중요한 것은 한국전쟁, 분단문학과 직접 연결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 소설들이 ‘해방기 미국 대중문화 유입’과 그에 따른 ‘신식민지 지배체계’의 주제를 구현하는데 얼마만큼 기여하는가 하는 데 의의가 있다. 이 같은 물음은 향후 해방기 문학 연구에 중요한 단서로 작용할 것으로 본다.

〈참고문헌〉

1. 자료

- 염상섭, 『양과자갑』, 『염상섭 중·단편선』 글누림출판사, 2007.
이태준, 『해방전후』, 『이태준 작품선-해방전후』, 현대문학, 2010.
채만식, 『미스터 방』, 『채만식 작품선-태평천하』, 현대문학, 2010.

2. 논저

- 나병철,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을 넘어서』, 소명출판, 1999.
박현호, 『이태준과 한국 근대소설의 성격』, 소명출판, 1999.
방준원, 『이태준론』, 『백민』, 1946. 10.
배하은, 『해방기 염상섭 소설의 탈식민적 현실 인식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2012.
백 철, 『문학자서전-후편』, 박영사, 1976.
송건호, 『해방의 민족사적 인식』, 『해방전후사의 인식』, 한길사, 1979.
송희복, 『해방기 문학비평 연구』, 문학과 지성사, 1993.
이강수, 『대중문화와 문화산업론』, 나남출판, 1998.
이병순, 『해방기 소설 연구』, 국학자료원, 1997.
이재선, 『이태준의 상고주의와 흠에의 삶』, 『한국현대소설사』, 흥성사, 1979.
이태준, 『전망이기보다는 주장』, 『개벽』, 1946.
이태준 외, 『문학자의 자기비판』, 『중성(中聲)』, 1946. 2.
임 화, 『소설문학의 20년』, 동아일보, 1940.4.12.
장성수, 『8·15 해방공간과 채만식문학』, 『국어문학』, 전북대학교 국어국문학회, 1984, Vol.24.
장영우, 『이태준 소설 연구』, 태학사, 1996.
조은기 외, 『대중문화와 문화산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06.
진덕규, 『미군정의 정치사적 인식』, 『해방전후사의 인식』, 한길사, 1980.
하정일, 『염상섭 혹은 탈식민 문학의 세계성』, 『탈식민의 미학』, 소명출판, 2008.

- Homi K. Bhabha, 나병철 역, 『문화적 위치-탈식민주의 문화이론(수정판)』, 소명출판, 2012.
- J. Storey, 박모 역, 『문화연구와 문화이론(An Introductory Guide to Theory and Popular Culture. Simon & Schuter, 1993)』, 현실문화연구, 1995.
- Lacan M, Jacques, 민승기 외역, 『욕망이론』, 문예출판사, 1994.
- P. de Man, The Resitance to Theory, Minneapolis : Minnesota University Press, 1989.
- Peter Childs and Patrick Willams, 김문환 역, 『탈식민주의 이론』, 문예출판사, 2004.
- Robert J. Young, 김택현 역, 『포스트식민주의 또는 트리컨티넨탈리즘』, 박종철출판사, 2005.
- Abdul R. janMohamed, “The Economy of Manichean Allegory: The Function of Colonial Fiction”, Critical Inquiry, 12:1, 1985.
- A. Gramsci, 『Selection from the Prison Notebooks』, London, Lawrence and Wishart, 197.
- Aijaz Ahmad, “The politics of literary postcoloniality”, Race Class 36:1, 1995.
- D. Hebdige, 『Subculture : The Meaning of Style』, London : Methuem, 1979.
- F. Fanon, “Concerning violence”, Wretched of the Earth, Harmondsworth : Penguin, 1969.

【국문초록】

본고는 해방기 소설 가운데 채만식의 「미스터 방」(1946), 이태준의 「해방전후」(1946), 염상섭의 「양과자갑」(1947)을 연구 대상으로 하여, 해방기 미국 문화·자본 양상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 소설들은 해방기 한국 문단의 판도를 조감하는 토대가 될 뿐 아니라, 해방기 미국에 의한 한국의 피식민 사회구조와 상황을 예시하고 있으므로 연구에 적절하다 할 수 있다. 또한 해방 후 미국에 의한 사상적·문화적 조류에 휩쓸리는 군상들의 혼란한 모습과 미군정의 등장으로 이어지는 신식민지적 사회를 표상하므로 연구 목적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이 소설들은 해방기 미국의 후기식민성에 의한 사회·정치·문화 등 전반적인 지배와 관련한 역사적·사회적 관점을 적시하고 있다. 더불어 한국의 신식민지적 정체성에 관한 현실 문제를 서사화하고 있는 것으로, 본 연구의 중심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본다.

따라서 본고는 해방기 한국 단편소설 분석을 통해, 해방 이후 미국의 문화 유입 양상을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신식민지 현실을 각층으로 하는 해방기 단편소설에 나타난 탈식민주의 경향에 대해 탐색하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해방기 채만식의 「미스터 방」, 이태준의 「해방전후」, 염상섭의 「양과자갑」 소설의 탈식민주의 경향이 한국 현대문학사에 차지하는 문학적 위치와 성과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주제어 : 해방기, 미국 대중문화, 미국 자본주의, 신식민지, 탈식민주의, 미군정, 통역정치

【Abstracts】

The study on the aspect of American Mass Culture Revealed in the Short Stories in Liberation Period

Seo, Cheolwon

This study searches the phase of American culture and capital, which includes "Mr Bang", Chae Man-Sik, "Haebang Jeonhu(Before and after Liberation)", Lee Tae-Joon, "Yanggwazagap(Pack of Western-style cakes)", Yeum Sang-Seop.

These novels are suitable for study because those are not only the basis of understanding the stream of Korean literature but also demonstrate the system and situation the colonized Korea. In addition, These novels are suitable for study because those express the chaotic appearance of people swept away by the stream of thought and culture by America, and neocolonial society which results in American rule.

In the meantime, these novels expose the historical social viewpoint, which is in connection with general rule by American imperialism ; society, politics and culture. Besides, this study describes actual problems about neocolonial identity in Korea. Accordingly, this study examines the phase of influx of American culture, and searches the tendency of post-colony came out in short stories.

Moreover,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literary position and result that the neocolonial tendency of "Mr Bang", Chae Man-Sik, "Haebang Jeonhu(Before and after Liberation)", Lee Tae-Joon, "Yanggwazagap(Pack of Western-style cakes)", Yeum Sang-Seop, are placed in the history of Korean modern literature .

Key words : liberation period, American mass culture, American capitalism, neo-colony, post-colonialism, American military government, American military rule, interpretation politics

이 논문은 2013년 6월 30일에 투고되었으며, 2013년 7월 26일에 심사 완료되어 2013년 8월 6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